

# KMI 동향분석

**VOL.29**  
2017 MAY

발간년월 2017년 3월(통권 제11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향분석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 中 일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 6월 AIIB 제주총회를 기점으로 해양수산부문 협력 강화 필요 -

김태일 해운정책연구실장  
(ktizorro@kmi.re.kr/051-797-4613)

김은수 국제물류연구실장  
(kes1213@kmi.re.kr/051-797-4665)

박성준 국제물류연구실 전문연구원  
(sjpark@kmi.re.kr/051-797-4774)

전우현 해운정책연구실 연구원  
(jwh0321@kmi.re.kr/051-797-4615)

공영덕 국제물류연구실 연구원  
(ydkong6053@kmi.re.kr/051-797-4778)

2017년 5월 14-15일 중국 베이징에서 29개국 정상급 인사, 130개국 대표단 및 70여개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양일간 개최된 일대일로 정상포럼을 통해 중국 일대일로 전략이 더욱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정상포럼을 통해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의 본격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6개 동시세션의 하나로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 ‘정책소통’ 회의를 통해 중국은 일대일로상에 위치한 주변국(연선국)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의 협약을 통해 32개에 달하는 양자·다자간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정상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중국은 일대일로 정상포럼을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수많은 일대일로 주변국가와 기초 인프라 건설, FTA 협정 체결을 통한 무역 확대, 금융 협력 등 전방위적으로 일대일로 전략 추진 계기들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정상포럼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일대일로 건설을 위해 중국이 ‘자금융통’을 명분으로 다양한 재원을 신설하는 등 특히 연선국가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실크로드기금에 1,000억 달러의 추가 자금을 확충했으며, 이 외에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시 1,000억 위안 규모의 ‘중국-러시아 지역 협력발전 투자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주도해 설립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도 연선국가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개발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AIIB는 2016년 6월 1차 용자승인을 필두로 금번 정상포럼이 열릴 무렵인 2017년 5월까지, 방글라데시 전력 배전망 업그레이드 및 확장사업, 파키스탄 타벨라 수력발전 확장사업, 아제르바이잔 트랜스-아나톨리안 가스관 연결사업, 오만 두쿰(여브)항 터미널 개발 사업 등 모두 13건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차관지원을 승인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그동안 서방세계가 주도하고 있던 글로벌 SCM을 독자적으로 구축하려는 중국식 세계화 전략이다. 또한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과 병행해 추진하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중국제조2025)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육상 및 해상 교통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사업과 해외 산업단지의 개발이 결합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중국의 자체 자금과 국제 금융기구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중국 일대일로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미국, 일본 등 당초 일대일로 전략에 의구심을 보이며 AIIB 참여를 거부했던 나라들도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함으로써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대형 인프라 투자 사업에 참여하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으로, 아베 총리는 정상포럼에 즈음해 AIIB 가입을 직접 시사하고 나섰다.

우리나라는 최근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조지아 댄스크라 수력발전 사업에 AIIB의 용자를 받을 예정이지만, AIIB의 창립 회원국이자 회원국 중 5위 지분율을 보유한 위상에 걸 맞는 참여 실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파키스탄 과다르항, 그리스 피레우스항, 케냐의 몸바사항 및 라무항 등 전 세계 항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도 글로벌 해양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AIIB 사업지역을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내부적으로는 기존의 신흥국경제증진 자금을 해운산업 강화 및 해외항만 진출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신정부의 중점 협력국으로 부상한 ASEAN 및 인도와의 해운물류 협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로 ‘서진전략’으로 구상되어 있는 일대일로전략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지역으로 평가되는 연해주 및 한반도 주변지역의 교통물류 개발에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남북한 교통물류망을 유라시아대륙과 연결해 나가는 방안을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물론 AIIB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바,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ASEM 교통장관회의 등 기존의 국제협력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당장 6월에 개최 예정인 AIIB 제주총회를 계기로 세계화 투자를 적극 확대해나가는 정책적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제1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최, 양자·다자 간 협력 협약, 인프라, 경제무역 및 금융 분야 성과 조명

### ■ 2017년 5월 14~15일, 제1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이 개최되어 29개국 정상급 인사, 130개국 대표단 및 70여개 국제기구 관계자 참석

-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14일 개막 연설에서 협력과 공영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국제 관계 구축을 강조, 또한 15일 폐막에서는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함
- 또한 68개 국가 및 국제기구와 일대일로 관련 협약 체결, 인프라, 경제무역 및 금융 분야 등 270여 개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면서, 향후 2019년 제2차 포럼 개최 및 동 포럼의 정례화를 발표함

### ■ 중국 정부, 일대일로 관련 국가 및 국제기구와 32개 협력 협약 체결

- 정상포럼에서 열린 6개의 주제별 동시세션 중 하나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및 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 '정책소통' 회의에서 관련 국가 및 국제기구와 32개의 양자·다자 협력 협약을 체결함
- 중국 발개위는 그리스 경제발전부와 「중국-그리스 중점 분야 2017~2019년 협력 계획」을 체결하였고 체코 공업무역부와의 일대일로 협력 계획 및 프로젝트 진행 추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sup>1)</sup>
- 또한 UN 유럽경제위원회, 세계경제포럼, 국제도로운송연합, 국제무역센터, 국제민간항공기구, 세계 해사기구 등 국제기구들과 '일대일로' 협력 협약을 체결함
- 향후 중국 발개위는 '일대일로 건설추진센터' 설립 및 해상실크로드 무역지수 발표 예정임

### ■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 기초 인프라 연계 프로젝트 협력 심화

- 중국은 파키스탄 발전개혁부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프로젝트 상 파키스탄 1호 간선철도 업그레이드 및 하벨리안(Havellian) 내륙항(Dry Port) 프로젝트 건설에 관한 양해각서 및 기본협정을 체결함
- 중국 상무부는 캄보디아 운수부와 기초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국가해양국은 캄보디아 환경부와 중국-캄보디아 연합 해양관측소 설립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했음

1) 그 밖에 일대일로 협력 양해각서 체결국으로는 몽골, 파키스탄, 네팔,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동티모르, 싱가포르,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이 있음.

- 중국 공업·정보화부도 아프가니스탄의 통신·정보기술부와 「정보기술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함
- 중국 철도부는 관련 국가들과 「중국, 벨로루시, 독일, 카자흐스탄, 몽골, 폴란드, 러시아 등 중국~유럽 화물열차에 관한 협력 협약」을 체결함
- 또한 중국 국가개발은행 및 수출입은행은 인도네시아, 세르비아,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국가들과 항만, 전력, 철도, 도로를 포함한 기초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용자 협약을 체결함

## ■ 조지아와 FTA 협정 등 30여개 국가와 투자 확대 및 경제·무역협력 강화

- 중국은 조지아(Georgia)와 FTA 협정을 체결하는 등 파키스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케냐, 몽골, 아제르바이잔, 시리아, 네팔 등 30여개 국가와 경제무역 협력 협약을 체결함
- 중국 발개위는 키르기스스탄과 아랍에미리트와 투자협력 강화 및 중국 농업부는 세르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이집트 등과 농업협력 계획을 체결함
- 또한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원활한 무역을 위해 몽골, 카자흐스탄, 러시아, 그리스, 스위스 등과 표준협력, 검험검역 협력 등을 체결함
- 각국 대표들이 경제 글로벌화 구축을 약속한 가운데 중국은 2018년부터 중국 국제수입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임

## ■ 실크로드 기금 확충, 일대일로 전용대출 신설 및 AIIB 등 6개 다자개발기구와 금융 지원 및 협력 강화

- 중국은 실크로드 기금에 1,000억 위안 규모의 추가 자금을 투입함
- 중국 국가개발은행은 일대일로 인프라 전용대출(1,000억 위안), 일대일로 생산능력협력 전용대출(1,000억 위안) 및 금융협력 전용대출(500억 위안)을 신설함
- 중국 수출입은행도 일대일로 전용대출(1,000억 위안), 일대일로 인프라 전용대출(300억 위안)을 신설함
- 중국 발개위는 총 1,000억 위안 규모의 ‘중국-러시아 지역협력 발전투자기금’을 설립할 예정이며 ‘카자흐스탄 생산능력 협력기금’의 실제 운영을 시작함
- 중국 재정부에는 AIIB, 아시아개발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유럽투자은행, 세계은행, 브릭스가 설립한 NDB(New Development Bank) 등 6개 다자개발기구와 일대일로 관련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했음
- 국제 다자개발은행들과 협력해서 다자 개발·용자 협력센터를 설립할 계획임

- 국제통화기금(IMF)과는 공동역량개발 센터 설립 및 일대일로 연선 국가를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 예정임
- 그 밖에 다른 국가 은행들<sup>2)</sup>과 융자 및 채권발행 관련 협력, 아시아수출입은행포럼 구성기관과 여신한도 협의 체결 등 실무 협력 전개 및 일대일로 은행 협력교류 체계를 구축함
- 또한 아시아금융협력협회가 공식적으로 설립됨

## 일대일로 프로젝트, AIIB 차관 사업으로 시너지 효과 본격화

### ■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 실현에 소요될 막대한 재원조달을 위해 중국 단독지원 및 아시아 인프라개발은행(AIIB) 등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 양면 전략을 구사

- 중국 일대일로 인프라 투자사업은 재원조달 방식에 따라 중국의 독자 투자사업과 AIIB 승인사업으로 구분 가능
  - 기타 재원조달 방식으로 실크로드기금(목표 자본금 400억 달러), 해상실크로드은행(목표 조성 금액 50억 위안), 브릭스은행 등이 있음
- 중국수출입은행 등 중국 단독의 정부투자 방식으로 최근 중국~벨라루스 산업단지 프로젝트<sup>3)</sup>, 케냐 몸바사~나이로비 철도 건설사업<sup>4)</sup> 등을 추진함
- AIIB는 2015년 12월 공식 출범했으며, 회원국은 창립당시 57개국에서 2017년 5월 현재 70개국으로 증가함
  - 중국은 약 300억 달러를 출자한 최대 출자국이며 지분율은 33.4%로 가장 높음
  - 한국은 약 37억 달러(약 4조 1,092억 원)를 출자해 지분율은 4.2% 기록(전체 5위)

2) 이란상업은행, 이집트은행, 헝가리 개발은행, 필리핀 메트로 은행 등

3) 중국~벨라루스 산업단지 : 2011년 9월 정부간 합의에 따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로부터 25km 지점에 대단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 5월, 시진핑 주석 등이 공사현장을 직접 시찰

4) 케냐 몸바사~나이로비 철도 건설 : 케냐 최대의 몸바사항과 수도 나이로비를 철도로 연결하는 건설사업으로, 중국수출입은행이 자금을 지원하고 중국철도(중철)가 시공, 케냐 최대의 건설 프로젝트로 중국 표준궤(1,435mm)를 채택

## ■ AIIB, 2016년 6월 이후 2017년 5월까지 13건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차관 지원을 승인

- 2016년 6월, 방글라데시 전력 배전망 업그레이드 및 확장사업, 인도네시아 빈민가 개선사업, 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 도로 개선사업 등 총 4건 승인 (1차 승인)
- 2016년 9월, 파키스탄 타벨라 수력발전소 확장사업, 미얀마 발전소 건설사업 등 2건 승인 (2차 승인)
- 2016년 12월, 아제르바이잔 트랜스~아나톨리안 가스관(TANAP) 연결사업, 오만의 두쿰(Duqm)항 터미널 개발사업 등 총 3건 승인 (3차 승인)
- 2017년 5월, 인도 안드라 프라데쉬 에너지 사업, 방글라데시 천연가스 인프라 및 효율성 개선사업 등 총 4건 승인 (4차 승인)<sup>5)</sup>

표 1. AIIB 차관 융자사업 (13건) 승인 현황

차수	국 가	사 업 명	분 야	소 요 예 산	비 고
1차	방글라데시	전력 배전망 업그레이드 및 확장 사업	에너지	1억 6,500만 달러	* 방글라데시 전력망 사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업은 다자기구와의 공동 재원 조달 방식이었음
	인도네시아	국가 빈민가 개선 사업	인프라	2억 1,650만 달러	
	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	두산베-우즈베키스탄 국경간 도로 개선사업	도로 인프라	2천7백만 달러	
	파키스탄	국가고속도로 M-4의 쇼르코트-카네알 구간 건설사업	도로 인프라	1억 달러	
2차	파키스탄	타벨라 수력발전소 확장 사업	에너지	3억 달러	
	미얀마	발전소 건설 사업	에너지	2천만 달러	
3차	아제르바이잔	트랜스~아나톨리안 가스관(TANAP) 연결사업	에너지 & 물류	총 117억 달러	* AIIB + 세계은행(8억 달러) + 민간조달
	오만	두쿰항 터미널 및 오퍼레이션구역 개발 사업	항만 인프라	2020년까지 총 3억 5,333만 달러	* 2017년 착수, 2018년 12월 완료 예정
	오만	철도 시스템 준비 프로젝트	철도 인프라	-	
4차	인도	안드라 프라데쉬 24x7 에너지 사업	에너지	세계은행과 공동 재원조달	* ADB와 공동 재원조달
	방글라데시	천연가스 인프라 및 효율성 개선사업	에너지	총 4억 5,300만 달러	
	인도네시아	댐 운영 개선 및 안전성 제고사업(2단계)	에너지	-	
	인도네시아	지역인프라개발기금 프로젝트	인프라	-	

5) 이상의 내용은 AIIB 공식웹사이트 중 프로젝트 리스트( <https://www.aiib.org/en/projects/approved/index.html> ) 참조



그림 1. 중국 일대일로 관련 인프라 사업 분포



- 이 밖에 2017년 5월 현재, 타지키스탄 누렉 수력발전소(1단계), 그루지아 바투미협곡 도로, 인도 구자라트 지방도로 건설사업 등 11개 인프라 사업이 용자를 신청함 (표 2 참조)

표 2. AIIB 차관 제안사업

국 가	사 업 명	분 야
타지키스탄	누렉 수력발전소 재건 1단계	에너지
조지아	바투미 협곡 도로	도로 인프라
인도	구자라트 지방 도로	도로 인프라
인도	뽀umbai 지하철 4호선	도시 인프라
인도	인도 인프라펀드	인프라
인도	미드야 프라데시 지방 연결성	인프라
스리랑카	마라벨리 홍수방지	지역발전, 인프라
필리핀	마닐라 수도권 수해방지(준설구역 등)	지역발전, 인프라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소	에너지
인도	변압시설 확충	에너지
카자흐스탄	굴샛 태양광발전소	에너지

# 일대일로 전략, 독자적 글로벌 SCM 구축 등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의 본격화 의미

## ■ 중국의 대내외 산업 전략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전략의 시너지 효과 제고

-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FTA 전략 및 자국의 제조업 육성 정책인 ‘중국제조 2025’ 전략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있음
- 중국은 1,500억 달러(약 168조 7,500억 원)를 향후 5년간 일대일로 참가 국가에 투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참가국으로부터 향후 5년간 2조 달러(약 2,250조 원) 상당을 수입하고 이들 일부 국가와는 FTA도 체결할 계획을 밝힌 바 있음<sup>6)</sup>
- 이는 글로벌 무역자유화의 근본 프레임인 FTA 전략을 기반으로 운송연계 전략인 일대일로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됨
- 더욱이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통해 1단계(2015~2025)에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한국 등과 같은 글로벌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하고, 2단계(2026~2035)에 글로벌 제조강국 내 중간 수준을 확립 하며, 3단계(2036~2049<sup>7)</sup>)에 주요 산업에서 선진적인 경쟁력을 갖춰, 세계 시장을 혁신적으로 선도하는 위치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sup>8)</sup>
- 이 같은 전략들은 제조업 강화(중국제조 2025) → 세계화 추진(FTA 전략) → 운송루트의 확보 및 투자(일대일로 전략)라는 사슬로 연계되는 일련의 전략인 것으로 판단됨
- 결국 일대일로 전략은 자국의 대내 및 대외 산업 전략과 맞물려 세계화를 주도하겠다는 중국의 큰 포부, 즉 중국식 세계경영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음

## ■ 물류 연계 전략을 통한 글로벌 SCM의 메이드인 차이나(Made in China) 추진

- 중국은 일대일로 노선 상에 위치한 국가들과 130여개 양자 및 다자간 운송협정을 체결해 왔으며, 이 같은 운송협정에는 우편, 철도, 도로, 해운 및 항공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음<sup>9)</sup>
- 구체적으로 연선국가 간 356개 도로운송루트가 개통되었고, 일대일로 상의 모든 국가에 해상운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중국과 43개 국가 간 매주 4,200여 편의 직항 항공 서비스가 개설되어 있음

6) 연합뉴스, “중, “일대일로” 참가국에 5년간 168조원 투자”, 2017.5.12.

7) 2049년은 중화인민공화국(신중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임.

8)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ttp://circ.kookmin.ac.kr/xe2010/media/11211640>, 2017.5.21. 검색.

9) CCTV, “China signs over 130 transport pacts with Belt and Road countries”, 2017.4.21.



- 또한 중국 교통운수부는 2017년 5월까지 이미 '일대일로' 36개 연선 국가 및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양자해운(수운)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음<sup>10)</sup>
- 양자 협정은 상대국 선박에 항만 서비스와 세급우대 등의 정책을 제공하는 동시에 상대국에 현지 회사 설립 지원 등을 포함하며, 향후에도 연선국가들과의 해상운송 협력을 강화할 방침임
- 글로벌 SCM을 연결하는 해운, 철도, 항공, 도로 등에 대한 투자는 결국 글로벌 SCM의 메이드인 차이나(Made in China)를 실현하는 것으로 평가됨
- 이 같은 전략으로 중국은 해운, 철도, 항공 및 도로 등 4대 국제물류 부문에 있어 글로벌 주도권을 갖추게 되며, 세계 최대 무역의 창출지라는 이점을 기반으로 물류의 주도권, 즉 해계모니를 차지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됨

## ■ 중국의 전략상 진출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협력 추진

- 특히 중국은 개별 프로젝트의 추진을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세계의 투자 전략을 일대일로와 연관 지어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일례로 중국 신장위구르 카스(喀什)에서 파키스탄을 관통해 남서부 과다르항까지 고속도로, 철로 및 송유관을 건설하는 3,000km의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구축을 추진함<sup>11)</sup>
- 사실상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 발표 해인 2013년에 이미 개발운영권을 확보한 바 있음
- 이에 인도 정부는 이전부터 CPEC 프로젝트에 대해 파키스탄의 길기트~발티스탄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음<sup>12)</sup>
- 또한 2013년 일대일로 전략 발표 전에 이루어진 FTA 등 무역 전략 및 해상운송 협력 등도 모두 일대일로의 프레임 안으로 끌어와 해석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프레임은 기존 전략인 중국의 해외진출, 즉 '저우추위(走出去)'의 정치화(精緻化)된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음

10)中国网, "交通运输部：我国与"一带一路"沿线36个国家签海运协定", 2017.5.17.

11) 국민일보, "[내일을 열며-노석철] 중국 '일대일로'의 명암", 2017.05.17.

12) 아시아 경제, "인도, 中일대일로 견제...문제점 지적", 2017.05.15.

## 중국 일대일로 전략이 본격화함에 따라 미국, 일본도 적극적인 관심으로 전환

### ■ AIIB에 참가하지 않은 미국은 언론, 민간 연구소 중심으로 중국 일대일로 전략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

- 2017년 1월 미국 포브스는 AIIB의 2차에 걸친 차관대출 승인결과를 검토하며, AIIB가 세계은행의 공동서류평가(due diligence assessment) 방식을 준용하여 비교적 공정하게 대출사업 승인을 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함<sup>13)</sup>
- 세계은행은 대출사업 승인 심사 시 신청국의 환경, 인권 등의 국제 관행을 적합 및 부적합 판정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함
- 특히 AIIB가 중국과 정치적·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의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지 여부가 주요 관찰 대상임
- 한편 미국의 영향력이 강한 세계은행 등은 AIIB 관련 사업에 대해 일부 사업비를 분담하는 ‘협조 융자’(co-financing) 방식으로 참여하고, 양 기관 간 지식공유 MOU를 체결함
- 2016년 12월, AIIB 승인사업 중 트랜스~아나톨리안 가스관 연결사업(아제르바이잔)은 세계은행 자금 8억 달러와 AIIB 자금의 협조 융자 방식으로 추진됨
- 미국의 정책 싱크탱크인 전략 및 국제연구소(CSIS)는 최근 AIIB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해 미국은 강력한 경제적·전략적 이해가 있으며, 미국의 인프라 회사도 이와 같은 역동적 시장 참여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전망함<sup>14)</sup>

### ■ AIIB 비회원국인 일본은 아베 총리가 AIIB에 가입할 수 있음을 직접 시사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

- 일본은 한편으로는 경계심을 표시하면서도, 2016년 AIIB 창립 이후 AIIB 사업 수주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음
- 파키스탄 쇼르코트~카네알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2016년 AIIB 승인 사업에 다른 은행과 함께 협조 융자 참여함

13) AIIB 창립 1년 평가에 관한 Forbes 보도 내용은 <https://www.forbes.com/sites/sarahsu/2017/01/14/how-chinas-asian-infrastructure-investment-bank-fared-its-first-year/#1a1fc2675a7f>을 참조.

14) <https://www.csis.org/analysis/president-xi-jinpings-belt-and-road-forum> 참조.

-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등을 중심으로 개도국 정부의 보증이 없는 사업에 대해 전략적으로 독자적인 정부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일본은 최근 중국에서 열린 일대일로 정상회의에 AIIB 회원국이 아님에도 참가함
- 일본 아베총리는 2017년 5월 15일, AIIB 운영의 투명성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일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가입할 수 있음을 시사함<sup>15)</sup>

## 주변국의 발 빠른 움직임에 대응, 우리 정부도 AIIB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전략지역 우선순위 선정, 플랫폼 개발, 개발자금 확충 노력 시급

### ■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AIIB 사업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 한국수자원공사의 조지아 (Georgia) 넌스크라 수력발전 사업 참여 건이 사실상 유일

- 조지아 넌스크라 수력발전 사업은 서북부 넌스크라강에 수력발전소(계획발전용량: 280MW)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 4월 AIIB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용자 후보 사업으로 결정
- 동 사업은 산업은행과 AIIB가 최초로 공동 용자하는 사업이며, 최종 승인은 2017년 9월말 열리는 AIIB 이사회에서 의결될 예정임<sup>16)</sup>
- 국내 민간 건설사들은 MDB 협조용자 프로젝트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AIIB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정부 지원 필요함
- 해외 물류시장 진출 전략을 신흥국 개발수요 확보 중심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고려한 거점항 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만큼 이를 AIIB 사업과 더욱 적극 연계할 필요가 있음

15)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330132> 참조. 한편 아베 총리는 2017년 3월 AIIB 참가에 대해 “조급하게 참가할 필요는 없다”고 밝혀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비춰볼 때 5월 참가 가능 시사 발언은 기존 입장의 번복이라고 해석될 수 있음.

16) 이상의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7. 4. 27) 참조.

## ■ AIIB 사업 지역은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6대 경제회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중국의 이해관계와 주변국 상황에 따라 선도, 편승, 균형, 전략적 헤징 등 다양한 접근 필요<sup>17)</sup>

- 첫째, 선도 대안은 우리나라에 전략적 이해가 매우 크거나 중국의 양보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단독 투자 또는 중국과 적극 협력 필요함
-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은 우리나라 북방시장 진출 및 한반도 정책과 직결되므로 선도적으로 사업 추진이 필요함
- 둘째, 편승 대안은 중국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거나 중국의 영향력이 큰 지역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중국의 대규모 투자에 협력함
- 셋째, 균형 대안은 중국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더라도 한국의 이익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미국, 일본 또는 세계은행 및 ADB 등과의 협조 융자 방식으로 협력함
- 넷째, 전략적 헤징은 중국과의 정면 대결을 피할 수 있거나 균형 대안이 통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제3지역으로의 진출투자 필요함

## ■ 통일 이후 대비와 아시아 주변지역의 '동진 전략'의 선도 필요

- 일대일로 전략은 주로 유럽을 종점으로 연계하는 소위 '서진전략'으로 구상되어 있으며, 일부 몽골 및 러시아와 연계되는 부분도 포함되어 확장되고 있으나 북한과 연해주 등을 연계하는 중국의 동쪽 주변지역은 동 전략에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따라서 한국의 통일 이후 한반도 주변의 산업변화와 전략적 변화에 대비하고, 상대적으로 일대일로 전략상에서 관심이 덜한 지역으로 평가되는 중국의 동북 3성, 러시아의 연해주 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新물류 루트의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특히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향후 한반도 긴장 완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같은 전략은 더욱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북한 나진항은 북한의 핵실험·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북중 교역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sup>18)</sup>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화물 여객선이 최근 첫 취항한 바 있음<sup>19)</sup>

17) 상기 선도, 편승, 균형, 전략적 헤징 방안의 정의와 내용에 대해서는 박성준·김은우·김세원, 「중국제조2025 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한 중국 1대1로 대응방향」, KMI현안분석, 2015. 12. 31의 내용을 요약함.

18) 연합뉴스, "北 나진항, 대북제재 속 북중교역 핵심거점 부상...연결노선 확대", 2017.04.24.

19) YTN, "북한-러시아 잇는 화물 여객선 첫 취항", 2017.05.19.

- 향후 우리나라 물류루트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의 연계 추진을 위해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낼 경우 한반도 주변의 긴장완화 및 우리나라 해운·항만·물류 분야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단초가 될 것임

## ■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등 기존 협력 플랫폼과 적극 연계, 3국 전략대화 강화

- 중국은 제6차 한중일 교통물류 장관회의(2016. 7. 항저우)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및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일본의 양질의 인프라파트너십 등 국제물류 네트워크 관련 한·중·일 3국간 전략 대화 및 협력을 제안한 바 있음
- 한국의 새 정부는 동북아 경제통합 관점에서 AIIB와의 연계를 통한 북한 인프라 개발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국제협력 강화와 연속성 유지가 필요함

## ■ AIIB 연계 위해 마련한 신흥국 경험증진자금을 확대 발전시킬 필요

- 신흥국 경험증진자금<sup>20)</sup>은 2016년 시장차입자금(수출입은행 채권)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신흥국 경험 강화 및 우리 기업 해외 진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함
- 정부는 수출입은행이 차입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신흥국에 자금을 빌려주면 조달금리와 지원금리의 차이를 정부가 채워주는 방식으로 운용되며, 2017년 이집트, 미얀마, 인도, 베트남 등 6건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함<sup>21)</sup>
- 2016년 설치된 해외 인프라 수주 및 투자지원 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해양수산 분야의 인프라 사업 해외투자 및 관련 기업 해외진출 사업을 개발해야 함
- 신정부는 국익우선 협력외교 부문에서 ASEAN, 인도로의 ‘번영 공간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양산업의 해외 진출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 6월 AIIB 제주총회 개최, 아시아 해상인프라 등 해양수산 부문 협력 프로그램 강화

- 금번 제주총회에서 비즈니스 세션 행사로 동시 개최 예정인 개도국 투자포럼, 비즈니스 미팅 및 비즈니스 리더 오찬, 한국 인프라기업 설명회에 해양수산 분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함

20) 설치 근거 및 운영 : 수운법 제18조 5항 및 EDCF법 제7조에 따라 수출입은행을 운영주체로 하고 신흥국 경제협력 및 해외 진출 기반을 제고(비구속성)

2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8. 31) 참조.

- 제주총회는 6월 15일~17일까지 개최되며, 거버너 비즈니스 회의, 거버너 공식회의 및 각종 세미나, 라운드테이블, 비즈니스 미팅 등으로 구성됨
- 특히 AIB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일대일로 전략을 활용하여 각국과의 해운·항만·물류 협력 사업의 전략적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일대일로 전략은 운송부분의 연계성(connectivity)을 앞세워 무역과 투자, 나아가 민간 문화 교류까지 확대하자는 것으로, 해운·항만·물류 분야의 본질적 특성이 국제화에 기반하기 때문에 세계 국가들과의 협력이 용이한 장점이 있음
- 또한 회의 기간 중 인도세미나(6. 16 예정)를 한-인도 정부 간 협력 및 정부·민간 협력 방향과 연계해, 향후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야 함



##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행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TEU 이상 줄어들 듯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업·수산물,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8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5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방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싼 가격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민들고를 살릴 지혜로운 소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URL : <http://www.kmi.re.kr/web/trebook/list.do?rbsldx=273>